

미중 데탕트와 소련: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강윤희
국민대학교

2014년 8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국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4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ISBN 978-89-92395-88-5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미중 데탕트와 소련: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강윤희
국민대학교

I. 머리말

1969년 소련 외교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 비밀외교루트(back channel)가 만들어지고 전략핵무기제한협정(SALT) 교섭이 시작된 것, 서독에서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집권 하자 서독과의 불가침조약 교섭에 들어간 일, 그리고 우수리 강 다만스키 섬에서 중소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은 1970년대 소련 외교의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소련은 미국 및 서유럽에서 적극적인 데탕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소 분쟁이 제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을 끌어들이며 미중 화해라는 극적인 변화를 도출해냈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 전반 데탕트 시기에 일어난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는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기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정책으로서의 데탕트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고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더불어 끝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이루어진 미중 화해 및 국교정상화는 1980~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중국의 부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세계질서 재편에 중요한 초석을 놓은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1970년대 당시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슈퍼파워로 전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소련은 데탕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미중 화해를 얼마나 자국에게 위협적인 사건으로 이해했었는가? 소련은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간과하였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판을 하였던 것인가?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970년대 전반기 소련 지도부의 대외 인식과 외교 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1970년대 소련 지도부의 대외 인식이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러시아 내부 1차 자료를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2차 자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데탕트 시기의 국제관계를 보여주는 1차 자료로는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고(APRF), 러시아연방외교정책문서고(AVPRF) 등이 소장하고 있는 회의록 및 공식 문서¹, 1971년과 1976년에 각기 열렸던 24차, 25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 회의록, 소련 정부 및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였던 프라브다, 이즈베스치아 등의 신문 사설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소련공산당 전당대회 회의록만을 참조하였다.

한편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국제냉전사프로젝트(CWIPH: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등에서 러시아 문서고



의 일부 자료와 미국 국무성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 미국에서 출간된 냉전사 관련 단행본들도 본 연구에 주요 자료를 제공하였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소련 주미대사였던 도브리닌(Anatoly Dobrynin)의 회고록(Dobrynin 1995), 미국 및 러시아 문서고 자료를 활용한 냉전사 연구서(Zubok 2009), 키신저 회고록(Kissinger 1982) 및 녹취록(Burr 1998), 가토프(R. Garthoff)의 데탕트 및 냉전사 연구(Garthoff 1994)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전반기의 소련 지도부의 국제 정세관이나 대중국 인식을 살펴보기에는 자료가 여전히 부족하여 많은 부분에서 추측에 의존하거나 의문점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추후의 연구가 이를 보완하게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II. 중소 분쟁의 심화와 소련 지도부의 대중국관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이 발발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소련과 중국 관계는 균열되기 시작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의 내전 승리 이후 견고해 보였던 중소 관계는 1950년대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² 1959년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 지도자 간의 인신공격이 시작되었고,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毛泽东)은 흐루쇼프의 소련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에 소련은 중국에 근무하던 자국 전문가를 소환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중국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소련과는 다른 사회주의 길로 들어섰다.

이처럼 중소 갈등 초기 양국의 대립 양상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추어졌지만, 그 내면에는 현실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Zang 2010; Radchenko 2010). 무엇보다 중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 대해 소련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중국의 소련에 대한 불만과 의혹이 커졌다. 소련은 원자폭탄 기술의 중국 이전을 거부하였고, 1963년에는 미국이 제안한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의 불만을 샀다.³ 이에 더하여 흐루쇼프의 스탈린(Joseph Stalin) 격하운동은 중국 내 마오쩌둥의 위상에 부정적 함의를 주는 것이었기에 마오 마오쩌둥은 이에 대해 몹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1964년의 말리놉스키(Rodion Malinovsky) 사건 이후 마오쩌둥은 소련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⁴ 한편 1965년 소련의 베트남 쿤밍 공군기지 건설계획, 1968년 소련의 체코 침공사건 등은 중국 지도부가 소련의 대 중국 군사개입의 가능성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⁵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1969년에는 중소 국경에서 무력분쟁까지 일어났으니 소련과 중국의 양자 관계는 최저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60년대 당시 소련은 왜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분쟁이 고조되게 만들었을까? 사실 소련이 중국 지도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유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주북(Vladislav M. Zubok)의 연구에 따르면, 흐루쇼프 실각 후 성립된 소련 집단지도체제 시기(1964-1968)에 소련 지도부는 소련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자본주의 서구와의 데탕트가 아니라 “형제”국가인 공산주의 중국과의 화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Zubok 2009, 197). 그러나 소련 지도부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격변 상황(문화혁명으로 치닫고 있는)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베이징의 소련 외교관들이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스크바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고서는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1965년 체르보네펬코(Stepan Chervonenko)를 대신하여 주중대사가 된 라핀(Sergey Georgyevich Lapin)은 냉소적인 당 관료 출신으로서 현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분석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Zubok 2009, 197). 한편 1965년 코시긴(Alexei Kosygin) 수상은 하노이 방문 시 2차례에 걸쳐 베



이징을 방문하여 각기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마오쩌둥을 만났으나 회담 결과는 낙담할만한 것이었다. 중국 대표는 매우 완고했고 이념적으로 공격적이었으며, 소련의 “수정주의”를 비판하였다. 코시긴 수상은 베트남에 대한 원조 문제를 두고서도 중국과의 정책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없었다.⁶

1969년 중소 국경지역 분쟁 발발 초기 소련은 중국에 대해 군사·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였다. 3월 최초의 교전 발생 이후 소련은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군사보복을 가하는 한편, 코시긴 수상은 중국 지도부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중국 지도부는 정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연락을 하라며 통화를 거부하였다. 소련은 1964년에 중단된 중소 국경문제에 대한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⁷ 그러나 8월 중순 중국 신장과 카자흐스탄 간의 국경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발발한 교전 이후 소련의 태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8월 28일 프라브다(Pravda)지는 중국의 모험주의로 인해 중소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것은 핵전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극동·시베리아 지역 소련군 증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9년 25개 사단이었던 소련군은 1973년 45개 사단으로 증강되었으며 전술전투기는 200개에서 1200개로 증가하였고, 이 지역에 있었던 50여 개의 SS-4, SS-5 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은 120개의 신형 SS-11로 대체되었다. 이에 대해 가토프는 소련이 극동·중양아시아 지역 내 모든 군사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유럽과 아시아 양쪽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것을 결정했다고 해석하였다 (Garthoff 1994, 231-232).

이처럼 소련은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대 중국 외교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는 국경분쟁 후 소련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비합리적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하게 작동했다. 주목에 따르면, 당시 모스크바에서 다음과 같은 농담이 돌았다고 한다. “극동의 소련 사령관이 급하게 크렘린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 5만 명의 중국인이 방금 국경을 넘어와 항복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Zubok 2009, 210) 종합적 국력에서나, 핵 전력에서나 전혀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중국이 소련을 상대로 군사 분쟁을 일으킨 사실은 소련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 결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인들이 중국을 두려워했다면 그것은 공격성(혹은 공격 능력)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합리성”에 방점이 있는 것이었다.

결국 1969년 국경분쟁에 대한 소련 측 태도는 중국을 겁주어서 중국인들이 다시는 소련 국경에서도 발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었다. 1969년 코시긴이 베이징 공항에서 저우언라이를 만났을 때, 저우언라이는 소련의 선제 핵 공격에 관한 “소문”을 언급하였고 당시 배석하였던 소련 외교관은 이를 중국이 소련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매우 겁을 먹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저우언라이는 중국이 소련에 대해 전쟁을 계획하거나 시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이 대화가 있던 후, 소련 지도부는 중국에게 위협적인 시그널을 다시 보냈고, 중국은 소련과의 비밀 불가침조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⁸

그러나 핵 위협을 통해 중국을 억지하려는 소련의 전술은 잘해야 절반의 성공이었다. 소련의 핵 위협은 결국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북쪽의 북극곰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고전적인 의미의 안보딜레마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미중 화해를 주도했던 키신저(Henry Kissinger)의 녹취록을 보면, 소련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야기되는 중국의 안보 불안감은 상당히 컸고 미국은 이를 중국을 미국 측으로 끌어당기는 카드로 사용하였다.

한편 소련 측의 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1969년 중소 국경분쟁 발발 이후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9년 코시긴 수상과 저우언라이 회담 당시 양국은 대사급 외교관 교환을 합의하였고⁹, 1970년 톨스티코프(V. S. Tolstikov) 소련 대사가 베이징에, 리힌구안(Li Xinguan) 중국 대사가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양국 간 무역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72년에는 2억 9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기도 했다 (Garthoff 1994, 241). 그러나 양국 관계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지배하였고, 결코 미중 화해가 그랬던 것처럼 전격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1972년 미중 화해 직후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는 삼각외



교에서 소련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불가침 및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하였지만, 중국은 이미 더 이상 소련과의 불가침조약이 필요하지 않았다(Garthoff 1994, 242). 그 결과 데탕트 시기 내내 소련은 삼각외교에서 불리한 한 축으로 남게 된다.

III. 미중 화해와 소련 지도부의 국제정세 인식

그렇다면 소련 지도부는 중국이 소련에 대항하여 미국과 결속할 가능성에 대해 왜 우려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자면, 첫째, 중국이 이념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 결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 둘째, 중국이 미국과 화해하더라도 양국 간에 현존하는 현실정치적 문제 때문에 미중 화해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 셋째, 미중 화해가 소련을 적대시 하는 군사적 동맹이 되지 않는 한 소련에 대한 위협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 넷째, 중국 및 미국의 외교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관 가능성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 1971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 계획 발표와 소련의 반응

현재까지 공개된 각종 자료에 근거해 보면, 소련은 1971년 미중 화해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소련 지도부로서는 중국과 미국이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손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중국이 1950년대에 후르쇼프의 평화공존론에 대해 수정주의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던 것과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 핵 보유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미중 화해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실제 1971년 키신저가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방중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그토록 놀랐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소련도 미중 화해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던 스탈린이 살아있었다면 미중 화해의 가능성과 그것이 소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형적인 당 관료였던 브레즈네프는 이런 종류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1930년대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상대적으로 빠른 승진의 혜택을 입었던, 전형적인 당 중간관료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다(Volkogonov 1998, 266-274). 브레즈네프는 1964년 후르쇼프의 실각 이후 집단지도체제 시기를 거쳐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 지위에 올랐는데, 그는 외교문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나는 여기 크렘린에 앉아서 내 책상에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통해서만 세계를 보고 있다.”(Zubok 2009, 201 재인용)¹⁰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들의 수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스탈린 시대의 정치국원들에 비해 외교문제를 잘 알지 못했고 확신이 없었다. 미코얀(Anastas Mikoyan)의 회상에 따르면 “정치국의 토론 수준이 매우 떨어졌으며, 엉뚱한 생각들이 개진되었고 브레즈네프는 논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Zubok 2009, 194) 이들 중 누구도 비전을 가진 정치가가 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혁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 부족, 다양성에 대한 관용 부족, 스탈린주의 경험 때문에 그러했다. 따라서 1971년 당시 소련 지도부의 국제정치 감각은 매우 뒤떨어졌다.

국제정치 감각 및 상상력의 부족뿐 아니라 정보 부족도 소련의 오관에 일조하였다. 소련 측은 미중 비밀접촉과 닉슨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실제 1971년 7월에 있었던 키신저의 1차 중국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는데, 소련 측에서 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 도브리닌(Anatoly



Dobrynin) 주미 대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키신저는 인도-파키스탄 분쟁 시 아시아로 출발하면서 자신의 아시아 방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도브리닌 대사를 불렀으나 자신이 파키스탄 방문 후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소련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오랜 반목 관계 때문에 양국이 비밀리에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닉슨이 브레즈네프와의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크렘린보다 더 놀라고 당황한 사람은 없었다고 회고하였다(Dobrynin 1995, 224-225).

닉슨의 중국방문에 대한 미국 방송이 예정된 1971년 7월 15일 아침 9시에 도브리닌 주미 대사는 급하게 백악관으로 불려 들어갔고, 그곳에서 키신저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이 전화통화에서 키신저는 자신이 7월 9~11일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정부를 대표하는 저우언라이 수상과 회담을 가졌고, 저우언라이 수상의 초청으로 그리고 미국 닉슨 대통령 자신의 의사로 1972년 3월 이전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도브리닌 대사의 회고에 따르면, 키신저는 미소 정상회담에 대한 닉슨 대통령 제의에 대해 소련 측이 답변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다고 분명하게 암시하였다고 한다. 닉슨의 중국 방문 발표를 앞두고 소련 측의 불쾌감을 상쇄하기 위해 도브리닌 대사에게 급하게 사전 공지를 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그의 중국 방문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련 정부가 방중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련 지도부에 전할 것을 부탁하였다(Dobrynin 1995, 226).

도브리닌 대사는 7월 19일 키신저와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이 때 그는 중국과 미국이 소련을 경쟁에서 압도하였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이 키신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감추었다고 한다.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이 소련 측과 정상회담을 가지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상회담이 1972년 4월이나 5월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 간의 미국과 소련 지도부 간의 “과장된 상호불신”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해 강하게 불평하였다고 한다(Dobrynin 1995, 227). 한편 키신저는 소련 측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중국 방문 내용에 대해 도브리닌 대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는 중국과의 회담 시 소련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또한 중국이 소련보다는 일본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다(Dobrynin 1995, 227). 마지막으로 키신저는 자신의 중국 방문에 대해 소련 측에서 문의해 오면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닉슨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소련 정부 측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Dobrynin 1995, 228).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내용에 비추어볼 때, 중국이 반복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키신저는 회담 시 저우언라이가 소련에 대해 깊은 고통을 표현했고 소련의 전술에 대해 경멸을 표했던 것, 또한 소련이 지나치게 팽창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저우언라이가 우려한 점, 그리고 미소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 사실¹¹ 등은 소련에게 감추었다. 이러한 내용은 키신저가 닉슨에게 보낸 보고서에 기록되어있는 부분이나 소련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교적 루트나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소 정상회담 날짜와 이에 대한 공식발표 날짜를 논의하기 위해 1971년 8월 17일 백악관에서 키신저와 도브리닌 대사가 만났을 때에도 키신저는 도브리닌 대사에게 미중 관계 진전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브리닌 대사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미국과 중국이 반소 책략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키신저는 “내가 그렇게 아마추어 같겠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였다(Burr 1998, 44-45). 그러나 미국, 중국 간의 회담 내용 및 이후 미중 관계 진전내용에 비추어 볼 때, 키신저의 대답은 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도브리닌 대사의 회고록이나 키신저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보면, 미국 측은 스마트하게 소련 측을 속였을 뿐 아니라 중국 카드를 이용하여 소련으로 하여금 미소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만들



었다. 사실 중국방문이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미소 화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당시 미국 내부에 존재했었다. 반면 중국카드가 소련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도 있었는데, 결국 역사는 후자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7월 닉슨의 방중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소련 측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는 데까지 약 10일이나 소요되었다. 이는 키신저의 비밀 방중이나 닉슨의 방중 계획이 소련 지도부를 매우 놀라게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8월 10일 프라브다(Pravda)지에 실린 글에 따르면, 미소 관계 전문가인 아르바토프(G. A. Arbatov)는 이 사건이 소련에게나 국제정세로 볼 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미중 관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고 논했다(Garthoff 1994, 271 재인용). 흥미로운 것은 소련 측의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기는 했으나 상당히 자제하는 논조였다는 점이다. 키신저는 당시의 소련의 반응을 “외교적”인 것이었다고 평하였다. 즉 소련은 미국 측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브레즈네프-닉슨 정상회담 날짜를 잡기 위해 보다 신속히 움직였던 것이다(Garthoff 1994, 270-271).

8월 5일 미국 측은 비공식채널을 통해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에게 닉슨 대통령의 개인서한을 보내 미소 정상 간의 대화를 요구하였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8월 10일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닉슨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1972년 5월이나 6월 중으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도록 도브리닌 대사를 통해 키신저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미소 정상회담 발표문의 내용 등을 조정한 후, 공식적인 발표는 10월 12일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Dobrynin 1995, 232-233).

미소 정상회담 발표가 10월에야 이루어졌지만, 닉슨-브레즈네프 간의 직접적인 서한 교신이 8월에 이루어졌고 이미 이 때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측에서 원했던 것처럼 미중 화해(닉슨의 방중 발표)가 미소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닉슨의 방중 발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소 정상회담이 결정된 것을 보면, 소련 측은 미중 접근으로 인하여 더 서둘러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련 지도부는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방식으로 미국에게 중국의 위협성을 부각하고 중국의 돌발적 행동에 대해 미소 공동보조를 끌어내는 것이 더 유리한 대처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소련 미국연구소가 제출한 관련 보고서는 “베이징 정상회담 결과 시작된 미중 관계 정상화는 기정사실이며 무효화될 수 없고, 미중 화해의 추가적 진척이 위협적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책은 이러한 진전에 주요 방해물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소 관계와 중소 관계 외교정책을 계획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외교정책 행위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¹² 즉, 미중 관계 정상화가 시작된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미중 관계가 더 이상 진척되는 것은 소련의 입장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련은 이를 막는 외교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소련이 미중 화해의 잠재적, 장기적 결과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더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 관계를 개선하고 자국에게 불리한 삼각 외교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소련 지도부는 미중 관계의 지속적인 진전과 공고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 즉 중국이 미국과 화해하더라도 양국 간에 현존하는 현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미중 관계의 추가적인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¹³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소련 미국연구소의 보고서는 미중 화해의 추가적 진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미중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시간을 두고 살펴본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소련 지도부는 중국이 미중 화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하여 보다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이후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중국



은 이를 이용하여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 측은 강하고 독립적인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일찌감치 판단하였고(Burr 1998, 83), 소련이 데탕트를 통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미국의 경제적 지원, 과학기술 지원은 소련이 아니라 중국에게 돌아갔다.¹⁴

다른 한편, 소련 측이 미중 화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에 항의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소련도 미국 및 서유럽과 데탕트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중 화해를 비난할 명분이 취약했기 때문일 수 있다. 소련은 이미 후르쇼프 시기부터 미소 양 진영 간 평화공존을 주장하였고 1969년부터는 미국과 SALT 협상을 하고 있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의 미소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자체를 비난할 근거가 없었다. 이와 더불어 서독과의 관계 개선 및 유럽에서의 데탕트 추구는 소련의 핵심 이익(유럽 동부 국경선 변경 불가침, 서유럽으로부터의 과학 기술 이전 등)을 반영한 정책이었기에 소련 지도부는 미중 데탕트 문제로 인하여 자국의 유럽 데탕트 정책이 영향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소련 위협론 vs 중국 도발론

미국을 중심으로 미소, 미중 삼각외교 구도가 형성된 것은 중소 분쟁 및 상호불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협감을 이용하여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들 국가를 움직이고자 하였고, 소련과 중국은 각기 상대국의 위협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견줄만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련보다는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 국력이 약한 중국을 편드는 것이 더 유리한 정책이었고, 실제 1970년대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소련은 중국 도발론을 미국과 공유하고 싶어 했으나, 현실은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이 소련 위협론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1972년 미소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거의 모든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Garthoff 1994, 272). 또한 소련은 SALT 협상과정에서 제3국에 의한 선제 핵공격에 대하여 미국과 소련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Garthoff 1994, 272). 어쩌면 소련 지도부는 중국이 소련과 미국 모두에게 잠재적 위협이며 미국인들도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완전한 오판이었다는 것이 후일 증명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이 소련에 대해 느끼는 공포심과 소련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공포심은 상당히 비대칭적이었다는 점이다. 양국의 핵전력이 비대칭적인 정도만큼 양국 지도부가 상대국에 대해 두려워하는 공포심도 비대칭적이었다. 1970년대 당시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성능이나 수에 있어서 소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비했기 때문에 소련 측으로서는 중국이 냉전 시대의 슈퍼파워에 걸맞은 정도로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측의 “비합리적” 도발이 우려되기는 하였지만 중국 문제가 소련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오를 만큼 그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 미국과의 SALT 협상 시 제3국에 의한 선제 핵공격 위협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중국이 아직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련 지도부가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련 측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도발에 대해 핵무기로 응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카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제 브레즈네프는 1973년 5월 키신저에게 중국에 대한 선제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후로도 브레즈네프는 여러 차례 미국 지도부에게 미소가 같이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추자는 제안을 하였다(Zubok 2009, 210).

중국을 염두에 두고 위기 발생 시 미소 공조를 요구하였던 소련 지도부에 대해 미국 측은 한 번도 동



조의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 미국은 소련의 속내를 파악하고 있었고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소련이 중국에 대해 자유 재량권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련 측의 중국 도발론은 미국에게 잘 먹히지 않는 카드였다. 여기서 브레즈네프가 대 중국 미소 공동전선이 가능하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미국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중국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만들어 대소 도발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수 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1971년 키신저의 비밀 방중 이후 지속적으로 정상회담 및 기타 협상 자리에서 소련의 위협에 대해 미국 측과 상세히 논의하고 소련 도발 시 미국의 중국 지원을 확보하려고 했다. 저우언라이, 마오쩌둥 모두 소련에 대해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키신저는 중국 지도부와 협상 시 중국인들의 소련에 대한 공포심을 심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더욱 부채질하였다. 키신저의 이러한 전략은 1972~1973년 미중 화해 초기에 특히 효과적이었다. 소련 지도부는 미국이 중국 지도부가 가지고 있던 절실한 안보 위기감을 이용하여 미중 화해를 이끌어내고 반소 견제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이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중국 도발 시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소련의 태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 미중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물론 키신저의 “북극곰 위협” 카드가 늘 잘 먹혔던 것은 아니다. 1974년 들어서서 미중 관계가 불투명해지고 중국 지도부의 미국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자 키신저의 소련 위협론 카드는 효력이 떨어졌다.¹⁵ 중국 지도부는 소련 위협론을 경시하였고 덩샤오핑 부수상은 중국을 겨냥한 슈퍼파워의 결탁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소 경쟁, 그리고 서구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였다. 1974년 11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키신저와 덩샤오핑 간의 회담 내용을 보면, 덩샤오핑은 키신저의 “북극곰 위협” 카드에 휘둘리지 않고 소련이 중국을 쉽게 침공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소련 동쪽 지역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이것이 일본 및 미국의 제7함대 및 미 공군, 해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소련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소련의 백만 군대로는 중국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백만 명을 더 증강하여야 하고 이 경우조차도 소련은 “인내심이 많은” 중국과 20년도 넘게 걸리는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Burr 1998, 309). 덩샤오핑은 1975년 7월 키신저와의 대담에서도 소련이 중국을 침공할 시 중국의 넓은 영토를 다 점령할 수 없으며, 8억 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Burr 1998, 384). 미국 측이 파악하였듯이, 덩샤오핑은 소련 위협론을 무시함으로써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소련 위협론에 대한 공유 정도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은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정보 교환을 일찍이 시작하였다. 소련 측이 미중 화해에서 특히나 우려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협조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키신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 소련 측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실제 중국과 미국은 국교정상화 이전에 이미 1974년부터 군사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소련 쪽 국경에서 소련군의 상황을 정탐하도록 미국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Burr 1998, 269). 결국 소련은 중국의 위협성에 대해 미국의 공조를 끌어내지도 못하였고, 자국에 대한 미중 간의 군사적 결속 가능성을 제거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소련 외교는 명백한 실패였다고 할 수 있다.

(3) 중소 관계 교착과 소련의 외교·정보력 부족

1972년 미중 화해 이후 소련은 중국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하였다. 미중 화해가 미국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반면, 소련은 중국에 대해서 극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소련



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사회주의 국가로서 “배신자”로 간주되었고, 미중 화해는 배신자 중국이 제국주의자 미국과 결속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정학적, 사상적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며 더 반동적이라고 간주되었다.

소련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보면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24차 당대회(1971년)와 25차 당대회(1976년) 시 브레즈네프의 기조연설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있음이 감지된다. 1971년에는 “1) 앞선 1년 반 동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조짐이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불화, 반목이 생기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공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양국의 장기적 이해관계에 부응할 것이다.”라는 요지로 브레즈네프가 기조연설을 하였다(XXIV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Soviet Union 1971, 34-35). 즉 소련은 미중 화해 이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1976년에는 “1) 중국의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 다수의 정책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주의자, 파시스트 등의 극단적인 반동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중국의 정책이 모든 인민의 이해에 충돌하며, 따라서 소련공산당은 이에 맞서서 반격을 가할 것이다. 3) 마오이즘은 이미 맑스-레닌주의와 연결될 수 없고, 맑스-레닌주의에 적대적이다. 따라서 마오이즘과의 투쟁을 실행할 것이다”라고 표명하여 중국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XXV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Soviet Union 1976, 33-34). 중국을 소련뿐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태도는 중소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최대도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소련인들의 혐오감은 1970년대 내내 소련 내에 상당히 만연해 있었다.¹⁶ 중국 혐오증은 공식 정부, 외교 라인뿐 아니라 학자 및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공유되었다. 마오이즘에 대한 공격¹⁷, “위험한 노선(Опасный Курс)”에 대한 비난, 이와 관련된 논문 및 서적 등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한다. 소련에서는 공식적 태도와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았지만, “중국에 관한 한 소련인들의 공식 태도와 실제 속마음은 일치했다”고 할 정도다.¹⁸

소련의 수장 브레즈네프도 이러한 견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은 브레즈네프가 인종주의 색채의 중국 위협론을 공유하였고, 마오쩌둥의 중국 지도부를 신뢰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중국과의 협상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Zubok 2009, 210). 브레즈네프는 유쾌하지 않은 중국과의 협상을 주로 코시긴 수상에게 맡겼고 자신은 미국, 유럽 문제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소련이 중국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미-중-소 삼각 외교에서 중국과의 관계라는 한 축을 소홀히 함으로써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소련 및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였다.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소련의 중국 혹은 미중 관계에 대한 외교-정보력이 크게 제한되었다. 소련과 중국 간에는 1970년 대사급 외교관계가 성립하였고, 1971~1972년간 KGB 및 외교부 보고서들이 소련 지도부에 보내졌지만(Garthoff 1994, 272-273) 키신저의 비밀 방중 등 주요 사건들이 모스크바에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 측의 정보력은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중 화해에 관련된 소련 측 비밀문서가 모두 해제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미중 화해 및 그 이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회담 및 면담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건대, 소련 측은 미국 측의 의도와 미중 화해의 진전 정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 이것은 소련이 미중 화해의 잠재적 위협성에 대해 오판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련 측의 정보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주요 정보통은 아이러니하게도 키신저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키신저는 중국과의 협상 내용을 소련에게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제스처를 취하였는데, 소련 측은 이러한 제스처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키신



저는 1973년 미국과의 연락담당자로 파견된 전 주불 중국대사 후양 첸(Huang Zhen)과 비밀리에 정기적으로 만나 미소 관계 진전 상황을 자세히 논의한 반면¹⁹, 미중 관계의 핵심 내용을 소련 측과 논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결국 미-중-소 삼각 게임에서 소련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중소 관계는 소련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있었고 소련은 미국과 달리 중국과 비공식 외교루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신저는 매우 자유롭게 중국에 대해 소련 위협론을 과장하고 소련에 대한 적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소련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물론 키신저의 위태로운 소련, 중국 간의 게임은 쉽지 않았다. 키신저의 행보는 때때로 상대국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키신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국가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었다.²⁰

그렇다면 소련은 왜 키신저 외교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앞서 언급한 정황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 외무성 및 KGB 등의 정보력 한계 때문일 가능성은 농후하다. 소련은 1971년 미국과 중국이 비밀리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중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예컨대 중국이 1974년부터 미국 측에게 소련 관련 주요 군사정보를 전달하고 있었고 국경 지역에서 소련군을 정탐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는데(Burr 1998, 269) 소련 측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사안은 소련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련 측에서 알았다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련 측에서 몰랐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소련 지도부 및 주미 소련 대사관에서 미국 데탕트 정책의 목적과 의도를 잘못 파악했을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소련 지도부는 미국과 소련이 핵전력에서나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 면에서나 상당히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두 국가가 전세계적 문제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 봉쇄 내지 소련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을 수 있다.

IV. 미소 데탕트와 소련 지도부의 국제정세 인식

미소 데탕트는 철저히 양국 핵전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냉전적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소련은 1969년경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 하에 1969년부터 SALT 협상을 미국과 시작하였다.²¹ 미소 양국이 2차 공격능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상호대화 및 핵전력제한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핵전쟁 시 승리를 목표로 했던 후르쇼프 시기의 군사독트린에 대한 심각한 수정을 의미했다.²²

SALT 협상 초기 소련 군부는 외교관들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의심했다고 한다(Zubok 2009, 215). 브레즈네프 집권 초기 외교정책 멘토 역할을 했던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 외무부 장관²³,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였던 유리 안드로포프(Yuri Andropov) KGB 수장²⁴ 등은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데탕트 정책을 추진하던 주요 인물이었다. 협상 초기에는 브레즈네프가 특별히 외교관들을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미국과의 SALT 협상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미국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 1969년 2월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비밀외교 통로가 만들어졌으나, 소련 공산당 지도부는 닉슨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닉슨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련 측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 닉슨은 키신저를 통해 중국과의 접촉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 즉 미국 측이 비밀 외교루트를 통해 중국과 소련 양측과 동시에 접촉하여 정상 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련 측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1971년 여름에 이르러서야 브레즈네프는 닉슨과 만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²⁵ 당시 브레즈네프-닉슨 간 정상회담 합의는 소련 정치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브레즈네프 서기장 개인의 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은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본인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참전 경험 때문에 전쟁은 어떤 비용이든 간에 회피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술했다.²⁶ 브레즈네프는 자신의 전임자였던 후르쇼프의 혁명적 낭만주의 외교, 벼랑끝 전략, 모험주의적 외교를 혐오했고, 스탈린의 현실주의적, 러시아 제국주의적 정책을 지지하고 존경하였지만, 본인은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졌다는 것이다(Zubok 2009, 203). 그는 세계 평화구축자가 되고 싶어 했고, 데탕트 정책과 자본주의 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소련 지도자로서의 성공과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Zubok 2009, 224). 일반적으로 브레즈네프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및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주도한 소련 지도자로 각인되어 있지만, 주목은 동 사태에 대한 소련 지도부 내부의 논의를 바탕으로 브레즈네프가 이를 열성적으로 주도했다기보다는 상황논리와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서 마지못해 개입을 결정하였다고 보았다(Zubok 2009, 207-209; 260-264). 반면 브레즈네프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은 미국 및 유럽과의 데탕트였다는 것이다.

브레즈네프가 데탕트 정책을 강력히 원했다는 주목의 해석은 미소 정상회담 결정과정에서 대한 도브리닌 대사의 회고 내용과도 일치한다. 1971년 8월 중 닉슨-브레즈네프 간의 서신 교환을 통해 미소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된 것은 닉슨 대통령-키신저-도브리닌 주미대사-브레즈네프 서기장으로 연결되는 비공식 채널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Dobrynin 1995, 228). 즉 미국무성, 소련 외무성, 그리고 소련 공산당 정치국을 이 채널에서 배제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소련 지도부 내부에서는 데탕트 정책에 대한 반대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였다. 주목은 소련 정치국 위원 대부분이 데탕트 기간 내에도 이념적으로 정통파에 속했다고 지적한다.²⁷ 1972년 베트남전쟁이 일어나자 닉슨을 모스크바로 초청하는 건에 대해 소련 공산당 정치국의 입장은 분열되었고,²⁸ 일부는 닉슨 초청건을 최소화하고 소련이 베트남의 확고한 동맹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브레즈네프의 외교적 주도권 발휘를 질투하였던 포드고르니(Nikolai Podgorny) 최고소비에트 의장, 그레첸코(Andrei Grechko) 국방부 장관은 닉슨 방문을 반대하였고, 수스로프(Mikhail Suslov, 국가정책의 이념적 순수성에 대한 최고 판사)는 정상회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Zubok 2009, 219). 반면 코시긴 수상과 그로미코 외무부 장관은 미소 정상회담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들은 정상회담 취소는 곧 있을 소련과 서독 간 조약 비준을 위협하게 할 것이며, 미소 간 전략 핵 균형의 틀을 제공할 SALT, ABM 조약을 무한정 연기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SALT 협상을 두고 군 내부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1972년 5월에 열렸던 국방위원회(Defense Council)에서는 브레즈네프가 직접 그레첸코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SALT를 통한 미소 타협의 필요성을 역설해야만 했다(Zubok 2009, 220-221).

결국 브레즈네프는 닉슨의 모스크바 방문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당 중앙위원회 비밀총회를 열어야 했다. 총회 전과 총회 기간 동안 브레즈네프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내부 인사의 회고에 따르면 브레즈네프는 그의 다차(러시아식 시골저택)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매우 불안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에게는 다행히도, 중앙위원회 비밀총회에서 코시긴 수상, 그로미코 외무부 장관, 수스로프, 안드로포프 KGB 수장이 미국과의 데탕트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Zubok 2009, 221).

닉슨 대통령은 1972년 2월 중국 베이징 방문에 이어 동년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닉슨의 모스크바 방문은 소련 TV 및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혹자는 닉슨의 모스크바 방문을 후르쇼프



의 비밀연설에 상응하는 사건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Zubok 2009, 225). 미소 정상회담에서 브레즈네프는 닉슨에게 상호 핵무기 불사용 협정을 제안하였다. 그는 닉슨과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정상회담 이후 미소 데탕트는 브레즈네프 개인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키신저의 모스크바 1차 방문을 포함하여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소 간 진행되었던 준비회담이 대부분 SALT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²⁹ 이것은 소련 측에서 생각한 미소 데탕트의 핵심 내용은 핵무기 협상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점은 미중 사이의 협상이 주로 지정학적인 세력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미중 화해의 주된 적대국으로 소련을 상정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미소 데탕트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세력분배를 상정하지 않았고 특정 국가—예컨대 중국—를 적대적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련 지도부의 의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미소 데탕트 과정에서 소련 측이 상대적으로 중국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1969년부터 1973년에 이르기까지 소련 외교의 최우선 관심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 측에서 공을 들이고 있었던 문제는 대 중국 봉쇄 내지 견제가 아니라 서유럽, 특히 서독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서독과의 관계 개선 및 데탕트 정책은 미소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고 서독의 동방정책과 맞물리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독, 미국과의 데탕트 성공은 브레즈네프의 국내적 정통성을 강화시켜 주는 주요 국제이슈였으며, 1973년 4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 시 그의 정책, 즉 미국 및 서독과의 데탕트 정책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소련 지도부가 서유럽과의 데탕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여러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소련에게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유럽이었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데탕트 및 군사적 긴장완화는 소련에게 의미하는 바가 컸다.³⁰ 실제 유럽에서의 데탕트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어진 국경선을 영구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소련 측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따라서 1972~1975년 간 진행되었던 동서 양 진영 유럽 국가들 간의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소련에게 미국과의 데탕트에 맞먹는 중요성을 가진 것이었다. 당시 그로미코 외무부 장관은 소련 및 중유럽의 국경선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소련은 그들이 원하던 국경 불변의 원칙을 서구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 한편 서유럽국가와의 데탕트는 소련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도 중요했다. 특히 안드로포프는 서독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를 통한 서독의 기술이전이 소련 근대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Zubok 2009, 211). 당시 소련 지도부에게 있어서 아시아, 중국 문제는 유럽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V. 결론

1972년 미중 화해 및 미소 정상회담 전후의 국제정세 변화와 소련 외교를 평가하자면 무엇보다도 소련 측의 태도는 상당히 “반작용적(reactive)”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중 화해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미소 정상회담도 상당 기간 주저하다가 미중 화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처럼 소련 외교가 국제정세를 주도하지 못하고 반작용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련은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은 국제질서 아키텍처 II(냉전 질서)의 주요 설계자였다. 이 질서 속에서 소련의 지위는 확고부동한 것이었고, 소련은 냉전 체제에서 슈퍼파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동유럽 공산권 국가



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서 페루, 칠레,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거나 소련과 연계된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아키텍처 II를 변경하거나 무너뜨릴 이유가 없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단지 미국과의 핵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1970년대의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를 기존의 냉전질서 틀 안에서의 변화라고 간주하였을 뿐, 이를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국제질서의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사실 1953~1960년의 1차 데탕트 시기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전반부의 2차 데탕트는 양대 진영으로 이루어진 양극 체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예컨대 소련은 미국 및 유럽과의 데탕트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결속을 유지, 강화하고 있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헬싱키협약의 주요 성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게 유리하게 그려진 국경선의 변경 불가침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즉 냉전의 해체 내지는 다른 질서로의 대체는 소련의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이 점에서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미중 화해, 미소 데탕트 시기의 미국 외교문서를 보건대 냉전의 해체가 그 의도가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미중 화해조차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당시 국제정세는 양 진영 간 전쟁불가피론을 거부하기는 하였지만, 양 진영의 대립은 기정사실로 간주되었다. 소련은 공식적으로 세계질서는 공산주의화를 향해 진전하고 있다고 믿었고, 제3세계에서의 내전 및 혁명의 발생은 이러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을 것이다. 소련 내에서 공식적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잠식 현상은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 서기장 등장 이후에야 본격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197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세계관에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한편 국내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1970년대 소련은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1971년 24차 전당대회에서 소련은 “발전된 사회주의”에 도달하였다고 공언하였는데, 여기서 발전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지나 완전한 공산주의 단계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를 의미했다. 당시 소련은 50%에 달하는 도시화를 이루었고, 일반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소련은 실업 부재, 주 5일 노동을 자랑하고 있었다. 소련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에 들어서서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초반 3.7%, 후반 2.5%를 기록하였지만 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 흔히 소련 브레즈네프 시기를 정체기라고 명명하지만, 소련 일반 시민들에게는 매우 안정적이고 살기 좋았던 시기로 인식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회고된다. 즉, 1970년대는 소련 전 기간 중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소련의 세계 비전은 제한적이었고, 소련은 새로운 아키텍처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소련 지도부는 비전, 상상력, 국제정세 판단력이 부족하였고, 미중 화해의 장기적 영향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였다. 브레즈네프와 그의 외교참모들은 미국의 닉슨과 키신저가 그랬던 것처럼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국제관계를 새롭게 구상하고 구축해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브레즈네프는 스탈린이 아니었고 소련에는 키신저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소련 외교의 특징 중 하나는 “힘”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소 데탕트조차도 힘을 가진 “강자”간의 대화로 인식되었으며, 그 대화의 핵심은 “힘”에 관한 것이었다. 소련에게 “힘”은 군사력, 특히 핵 전력을 의미했다. 따라서 미소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핵무기에 관한 것이었으며, 매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소련은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힘”의 관점에서 대응하였다. 소련은 자국 극동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핵무기 공격 가능성으로 중국을 겁주려 했을 뿐, 중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미국에게는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어 신 냉전으로의 정책 변화의 근거가 되었고,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더욱더 떨어져 미국과 손을 잡게 만들었다. 외교가 상대국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수단이라면, 소련 외교는 명백한 실패였다고 할 수 있다. ■



주(註)

- ¹ 러시아의 공식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비밀해제될 수 있으나, 실제 많은 문서들이 국가비밀 유지 등의 이유로 비밀해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정부 측에서 선택적으로 일부 자료만을 비밀해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비밀해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문서고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Patricia Kennedy Grimsted, *Archives of Russia Five Years After* (Amsterdam,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1997) 참조.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는 달리 외교관계 문서를 비밀해제한 후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지 않다.
- ² 1950년 중·소 우호조약 전면 개정을 통해 소련은 모든 만주 관련 이권을 중국에게 반환하였고 스탈린은 중국에 대대적인 군사 및 기술 지원을 약속하고 MIG 전투기와 소형 잠수함 함대를 제공하였다. 스탈린 사후 집권한 후르쇼프는 적극적인 대중국 군사, 산업, 농업 기술 지원을 단행하였다. 후르쇼프의 1954년 중국 방문 이후, 양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중국학생들의 소련 유학, 8천 명에 달하는 소련 전문가의 중국 산업화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노경덕 2012, 61-62).
- ³ 1963년 당시 핵보유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은 대기권 내,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였는데,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던 프랑스, 중국과 같은 비핵보유국들은 이 조약을 핵보유 3대국에 의한 핵의 독점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조인하기를 거부하였다. 이 조약은 지하 핵실험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핵개발을 위한 초보적인 대기권 내 실험을 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금지하는 효과를 가졌다.
- ⁴ 소련 국방장관 말리놉스키가 모스크바 방문 중이던 중국 대표단에게 ‘취중’에 소련이 후르쇼프를 실각시킨 것처럼 중국도 마오쩌둥을 몰아내라고 종용한 사건을 말한다.
- ⁵ 냉전사 연구가인 가토프에 따르면, 특히 소련의 체코 침공 직후 중국의 외교정책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오래된 논쟁적 공격을 중단하였고, 소련을 겨냥해서 “사회주의 제국주의(social imperialism)”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새로이 시작하였다. 또한 루마니아와의 외교적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Garthoff 1994, 229; 235).
- ⁶ 한편 코시긴 수상은 베트남에게 미국과의 전면전에 들어서지 말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소련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외교정책 전략을 세우고 싶어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1967년에는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 정권이 전복됨으로써 중요한 교두보를 상실하였다(Zubok 2009, 198).
- ⁷ 따라서 소련의 초기 대응은 단호한 것이기는 했으나 분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가토프는 지적한다(Garthoff 1994, 231-232).
- ⁸ 러시아 학자들은 핵 위협을 통해 중국을 억지하려는 소련의 전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Zubok 2009, 210 재인용).
- ⁹ 소련과 중국은 상당 기간 동안 대사 없이 대리공사(charge d'affaire)가 양측을 대표하고 있었다(Garthoff 1994, 239).
- ¹⁰ 브레즈네프는 집권 초기에 일군의 연설문작성자들에게 크게 의존하였다고 한다. 브레즈네프가 총서기장으로서 외교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수의 “개화된”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온 외교전문가로서 실용적인 자유사상가들이었다. 당시 안드로포프가 이들을 충원하고 지원하였다고 한다.



- ¹¹ 중국과 소련 중 어느 국가를 먼저 방문할 것인가는 까다로운 문제였다. 1971년 저우언라이-키신저 회담 시 저우언라이는 소련을 먼저 방문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키신저는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였다(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2002).
- ¹² 해당 보고서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고에 수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브레즈네프 서기장 외 여러 당 비서들이 읽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Garthoff 1994, 273에서 재인용).
- ¹³ 여기서 현실정치적 문제라 함은 대만 문제를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조건으로 미국의 대만과의 외교적 단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미·중 국교정상화 과정은 지난한 협상과 시간을 필요로 했다.
- ¹⁴ 1974년 잭슨-바닉 조항을 포함한 미국 무역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없었으며 미국 정부의 신용공여도 3억 달러로 제한되었다. 이는 키신저가 브레즈네프에게 약속했던 경제혜택을 소련이 받을 수 없게 됨을 의미했다(Burr 1998, 356).
- ¹⁵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 내 권력 구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중국 지도부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자 미·중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정책적, 철학적 차이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Burr 1998, 265-267).
- ¹⁶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황화론(yellow peril)의 변형이기도 했다.
- ¹⁷ 마오이즘은 마오쩌둥의 사상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뭉뚱그려 중국을 의미할 수도 있다.
- ¹⁸ 1970년대에 소련에서 살았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인터뷰 내용.
- ¹⁹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 초기에 도브리닌 대사를 통해 소련과의 비공식 루트를 확보한 반면, 자신의 비밀 방중 직후 중국외교관들과의 비밀 외교통로를 확보하였다. 후양 첸은 키신저의 대 중국 비밀 외교통로 중 한 명이었다. 키신저는 그를 통해 미·소관계의 핵심 내용을 베이징에 알려줌으로써 저우언라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Burr 1998, 46-47).
- ²⁰ 1975년 무렵 중국은 키신저 외교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미·중 관계는 차가워졌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키신저가 소련 위협론으로 자신들을 조정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Burr 1998, 374).
- ²¹ SALT 협상은 1969년 10월 헬싱키에서 시작되었다. 소련 측 협상 대표는 세묘노프(Vladimir Semenov)였다.
- ²² 브레즈네프 시기에 오면 양국 간 핵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이 폐기되고 핵전쟁은 어떻게든 회피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팽배하였다.
- ²³ 그로미코 외무부 장관은 보수적이거나 고도로 전문적인 외교관이었다. 그는 외교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혐오하였다고 한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 및 중유럽의 국경을 인정받는 것이었고, 그 다음 관심사는 미국과의 정치적 수용이었다. 그는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이 8~10년 안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중국 공산당 측의 견해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²⁴ 안드로포프는 스탈린의 전시 현실정치(Realpolitik)를 흠모하였다고 한다. 그는 데탕트를 “힘을 통한 평화”로 인식하였으며 “아무도 약자와는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 ²⁵ 그러나 닉슨의 중국 방문에 관한 갑작스러운 보도로 인하여 미·소 정상회담 공식 발표는 10월로 미루어졌다.



- ²⁶ 브레즈네프는 제2차 세계대전 시 1942-1945년 내내 군정치위원으로서 코커서스에서 카르파티아 산맥에 이르기까지 군 부대를 따라 진군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 전쟁 경험이 후일 미·소 간 전쟁을 회피하고 미·소 데탕트를 추구하는 강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Zubok 2009, 202).
- ²⁷ 데탕트 시기에 소련 공산당 정치국 내부가 강경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측되었지만, 비밀해제된 내부 문서들에 기초해 볼 때 정치국원 대부분은 데탕트 기간 중에서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적 정통파였다고 한다(Zubok 2009, 204).
- ²⁸ 1972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4월 미 공군 폭격 시 소련 상선이 피해를 입었다. 브레즈네프는 미국 측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격분하였다고 한다.
- ²⁹ 1972년 4월 21, 22일 소련 측 제안에 따라 키신저가 모스크바를 비밀 방문하여 브레즈네프와 회담을 하였다. 키신저는 소련 측이 원하던 것들에 대해 타협적 태도를 보였고, 브레즈네프는 키신저와의 협상 시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협상가의 모습을 보였다(Zubok 2009, 218).
- ³⁰ 1970년대 들어서서 소련이 극동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요 주력 부대는 서유럽을 향해 배치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노경덕. 2012. “중·러 관계의 역사적 전개.” 장덕준 엮음. 《중·러관계와 한반도》 61-62. 서울: 한올아카데미.
- Burr, William. ed. 1998. *The Kissinger Transcripts: The Top-secret Talks with Beijing and Moscow*. New York: The New Press. 44-47; 83; 256-267; 269; 309; 334; 356; 374.
- Dobrynin, Anatoly. 1995. *In Confidence: Moscow's Ambassador to America's Six Cold War Presidents, 1962-1986*. New York: Times Books. 224-228; 232-233.
- Garthoff, Raymond. 1994.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29-232; 235; 239; 241-242; 270-273.
- Goncharov·Usov. ed. 1992. "Peregovori A. N. Kosygina i Chou Enlaia v Pekinskom Aeroportu." *Problemi Dalnego Vostoka* 5. Moscow.
- Grimsted, Patricia Kennedy. 1997. *Archives of Russia Five Years After*. Amsterdam: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 Kissinger, Henry. 1982. *Years of Upheaval*. Boston: Little Brown.
- Leffler·Melvyn·Westad. ed. 2010.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chenko, Sergey. 2010. "The Sino-Soviet Split."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2002. "Henry Kissinger's Secret Trip to China: The Beijing-Washington Back-Channel, September 1970-July 1971" (Document 1-41).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66. February 27.
- Volkogonov, Dmitri. 1998. *The Rise and Fall of the Soviet Empire*. London: HarperCollins. 266-274.
- XXIV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Soviet Union. 1971. *XXIV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Soviet Union: Stenograficheskii otchet*, 3 March-9 April 1971. Moscow: Izdatel'stvo Politicheskoi literatury.
- XXV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Soviet Union. 1976. *XXV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Soviet Union: Stenograficheskii otchet*, 24 February-5 May 1976. Moscow: Izdatel'stvo Politicheskoi literatury.
- Zang, Shu Cuang. 2010. "The Sino-Soviet Alliance and the Cold War in Asia, 1954-1962."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bok, Vladislav M. 2009. *A Failed Empire: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from Stalin to Gorbachev*.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194; 197-198; 201-204; 207-211; 215; 218-221; 224-228; 260-264.



필자약력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러시아학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영국 글라스고우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특별연구원,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로는 러시아정치 및 역사, 여성정치 등이 있다. 저서 및 편저로는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2009, 공저), 《러시아의 선택: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국가·시장·사회의 변화》(2006, 공저), 《한·러관계사료집 1990-2003》(2005, 공저), “러시아 체제전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계”(2012), “스탈린의 산업화 전략과 소련 공산당 기능의 변화, 1928-1932: 레닌그라드의 사례연구”(2002)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 재단(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으로부터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와 한국외교”(East Asia’s Chang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연구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 본 보고서는 EAI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유재승 외교안보연구팀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ryu01@eai.or.kr

